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3호 【루계 제26087호】 주체107(2018)년 8월 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7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총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들어설 열의밑에 힘찬 투쟁을 벌려 7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륜전기계공업관리국에서

기계공업성 륜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각지 생산단위들에서 7월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높이 세운 뜨락또르생산목표를 당이 정해준 기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기어이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지니고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각지 생산단위들에서 자력자강의 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들은 다축불반과 외축후라이스반을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을 높여 생산능력을 한계단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성호뜨락또르공장에서는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충성-122》호뜨락또르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7월에 뜨락또르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맡겨진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순천기관공장의 로동계급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종전의 다축보링반과 다축후라이스반 등 10여대의 설비들의 성능을 높이고 기관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여 생산을 늘여나갔다.

함흥차바퀴공장에서는 차바퀴성형기를 새로 제작하고 지구장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였다.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베아링을 비롯한 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륜전기재들의 주요협동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채취기계공업국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채취기계공업국적으로 7월 공업총생산액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뽐프, 전차, 감속기를 비롯한 중요지표들에 대한 생산과제가 완수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의 일군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지표별에 따르는 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안주뽐프공장의 로동계급이 과감한 증산돌격전으로 7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들은 올해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줄 뽐프생산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여러 전투현장들과 각지 건설장들에서 요구되는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나라의 전력생산과 석탄공업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성과를 확대하였다. 특히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철생산에서 제기되는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면서 새형의 300hp권양기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고 지금 시운전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회령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탄차와 권양기를 비롯한 지표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동림광산기계공장, 사리원광산기계공장에서도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월계획완수의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잠업비단공업국에서

잠업비단공업국에서 7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이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렸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선별공정과 고치걸면제거공정에 흐름식생산체계를 받아들여 적은 로력으로 생산성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생산공정들에 앞선 작업방법들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요구되는 기료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비단실생산을 늘이였다.

강서제사공장, 함흥제사공장, 성천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단위의 특성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월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특히 강서제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조사기의 실머리찾기기구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집서기와 청소날개부분품들을 자체로 제작설치하여 비단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박천견직공장의 로동계급도 생산장성의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광택전모기를 원상복구하고 합부기를 새로 제작설치하여 생산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안주견직공장을 비롯한 각지 생산단위들에서는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는 기술혁신,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룡강화강석광산에서

룡강화강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요구되는 돌가공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7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을 비롯하여 여러 건설장들에 근 5 000㎥의 돌가공품들을 생산보장한 광산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5월초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를 늦춤이 없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과감한 증산돌격전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일군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종업원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펴기있게 벌려나갔다.

광산에서는 생산장성의 열쇠를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서 찾고 자행식원석절단기와 지게차, 굴착기,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보강하여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였다. 또한 원석채취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어 적은 투자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해나갔다.

광산의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드센 경쟁열속에 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졌다. 불리한 일기조건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이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 나선 화선용사마냥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왔다.

하여 이들은 지난 7월에만도 계획된 수천㎥의 돌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7월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인민들이 먼저 찾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7월제품질제고대책월간을 맞으며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공정별검사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또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의 주인이 되도록 하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갔다. 이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맡겨진 일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특히 인민들의 수요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어 맛좋고 영양가높은 제품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불꽃튀는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살림집과 공공건물골조공사 련이어 완성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삼지연전역에서 혁신의 새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16사단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불꽃튀는 창조투쟁을 벌려 7월말현재 삼지연군 읍지구 65개 호동의 살림집과 22개의 공공건물, 4개의 산업건물골조공사를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 많은 건설대상에 대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여 골조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다.

온 나라가 9월의 대축전을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속에 전해진 이 자랑찬 성과는 혁명의 시원이 열린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216사단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216사단 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 려단, 련대들에서 맡은 건설대상에 대한 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216사단 현장지휘부 정치부에서는 립체전, 전격전을 벌려 읍지구 대상건설을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로 돌격대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직관선전과 방송선전, 전투속보판을 통한 화선식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전투장에 총공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성, 중앙기관려단이 맡은 대상건설에서 높은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인민보안성련대의 지휘관들과 내무군군인건설자들은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2개 호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남먼저 결속하였다.

3련대와 5련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결사의 의지밑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들은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부사를 리용한 일체식벽체축조방법을 받아들여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감으로써 2개 호동 살림집골조공사를 련이어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창조와 혁신의 불길은 922건설려단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려단의 일군들은 공사대상이 방대하고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있는 속에서도 로력배치와 골재보장 등을 면밀히 짜고들면서 립체전, 전격전을 들이대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째인 전투조직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여러 대상의 골조공사가 결속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618건설려단에서도 련일 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자강도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수십일동안에 맡은 공공건물골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황해북도련대에서는 골재보장에 힘을 집중하고 중형파쇄기를 설치하여 깬자갈생산을 앞세우면서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공공건물골조공사를 앞당겨 끝내였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에서도 골조공사를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각 도, 시,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원사업을 성의껏 하여 공사장의 숨결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지금 216사단의 전체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홍성준

새 제품개발에 더 큰 박차를

각지 신발공장들에서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아래 각지 신발공장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관리국적으로 질좋은 300여종의 구두, 운동신발 등이 개발되였다.

이것은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더 좋게, 더 빨리 발전시켜나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경제건설대진군에 떨쳐나선 신발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창조본때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에서는 모든 공장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경제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관리국에서는 각지 신발공장 도안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창작기량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을 여러차례 조직하여 경험교환이 활발히 벌어지게 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신발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에서 인기를 끄는 새 제품들을 수십종 개발하였다.

운동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실현에 힘을 넣어 그물운동신발, 축구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공장의 도안가, 설계가들은 신발공업부문의 세계적발전추세와 최신과학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나이별, 품종별, 계절별에 따르는 도안창작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들은 하나의 도안을 창작하고 설계해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제품으로 되게 할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기술공학적원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도안창작을 진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새형의 신발도안이 창작되면 견본품생산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규정하고 문수별에 의한 형지작성과 기술준비를 앞세워 생산현장들에 신속히 도입하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의 모든 직장들에서 생산자들이 새 제품에 대한 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합리적인 재단방법과 신울가공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수십종에 달하는 각종 새 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도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와 문화적수준에 맞게 맵시있고 다종다양한 새 제품개발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는것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도안합평회와 제품품평회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새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인기를 끄는 수십종의 남, 녀, 아동구두들을 개발생산하였다.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년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공장종업원들은 공정마다에서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하나하나의 제품생산에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흥남구두공장, 평양구두공장, 보통강신발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해놓고 수십종의 각종 신발들을 개발하고있다.

강계신발공장, 원산신발공장 등 각지 공장들에서도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 신발생산에서 뚜렷한 질적개선이 이룩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경제건설대진군길에 떨쳐나선 각지 신발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풀베기전투에서 련일 혁신

황해남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풀을 많이 베여 거름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풀베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에서는 모든 농촌들에서 풀베기와 풀거름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중을 풀베기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풀베기전투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그날계획은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신원군에서 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군의 일군들은 앞채를 메고 달리면서 작전도 실천도 들끓는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풀베기시작부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결과 농장들에서 매일 많은 풀을 베여들이고있다.

해주시와 태탄군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연안군에서도 일군들이 풀베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풀베기실적을 올리고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풀베기전투에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중시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풀거름생산을 늘여 지력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안악군, 배천군, 옹진군, 신천군에서도 풀베기실적을 올리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풀베기실적이자 거름더미의 높이, 쌀더미의 높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풀베기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또한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베여놓은 풀들을 퇴적장에 제때에 실어들이고 거름생산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평양을 출발

【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였던 전쟁로병들이 7월 31일 평양을 떠나갔다.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내세워주는 당의 대해같은 은정속에 대회참가자들은 인생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으며 평양체류의 나날을 뜻깊고 즐겁게 보내였다.

귀로에 오르는 로병들을 숙소의 종업원들과 수도시민들, 청소년학생들이 열렬히 환송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광호동지, 김평해동지, 오수용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근로자들이 4.25려관, 평양국제비행장, 평양역에서 뜨겁게 바래워주었다.

한편 대회참가자들을 지방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가족, 친척들, 이웃들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조선혁명의 승리사를 동지애, 전우애의 새 전설로 수놓아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품속에서 전쟁로병들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삶은 세대를 이어 길이 빛날것이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자기의 국호에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두 글자를 아로새긴 때로부터 장장 70년세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은혜로운 품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사회주의조국이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그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값높은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지만 그 지위와 역할은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것이 아니다. 력사가 오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여, 《만민평등》을 표방하는 사회라고 하여 인민들의 삶이 존엄높고 행복한 삶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값높고 보람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의 세기적념원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보장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 참다운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해온 거창한 투쟁과 변혁의 력사이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난 긍지높은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울 원대한 뜻과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이민위천은 한생의 지론이였고 자신은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시였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오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혁명생애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대중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조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펴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한평생 애민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을 인민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드�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고 장군님의 정치도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이며 장군님의 풍모도 가장 숭고한 조국애와 인민사랑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언제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정을 마음속에 꽉 채우시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신 인민사랑의 한평생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높은 존엄과 영예, 이 땅의 모든 귀중한 재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을 바쳐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있지만 우리 공화국과 같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강위력한 국가, 우리 인민처럼 참다운 조국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건설한 공화국, 자주적인간의 값높은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어머니조국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나가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지난 70년간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가장 존엄높은 삶을 누려왔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높고 긍지높은 생활은 자주적인 생활이다. 남의 지배와 예속밑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있을수 없다. 하루를 살아도 자주적인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것이 진정으로 존엄높은 삶이다.

인간의 존엄은 사회정치적자주성에 의하여 담보되며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자주적인 정권에 의해서만 굳건히 고수되게 된다. 나라없던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온갖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아왔다. 상가집개만도 못한 인생살이를 강요당하며 자기의 성과 이름, 말과 글까지 빼앗겼던 우리 인민이다. 자기를 지켜주고 내세워줄 조국이 없었던탓에 식민지기반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은 바로 진정한 어머니조국, 우리 공화국정권하에서 비로소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비롯한 정치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존엄높은 삶을 누려왔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여 국가의 정사를 론하고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모습이다. 근로하는 인민의 존엄이 극소수 특권층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짓밟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사람답게 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고마운 우리 조국, 사회주의제도가 아니였다면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도 행사할수 없고 존엄높고 보람찬 생활도 누릴수 없었을것이다.

자주는 인류의 지향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지금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이 거창한 시대의 선두에서 자주의 기치높이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주체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해주고 참다운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것이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다.

지난 70년간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려왔다.

인민들의 물질적요구를 실현하는것은 그들에게 자주적인간으로서의 값높고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안정되고 건전한 물질생활이 보장되여야 사람은 육체적생명뿐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것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인민적인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특히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도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정휴양제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쿵우유》, 《대동강맥주》를 비롯한 사랑의 글발들을 새긴 차들이 인민들을 찾아 쉬임없이 달린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지금 우리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도 바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축산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는것은 근로하는 인민들을 물질적부의 적극적인 창조자, 진정한 향유자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긍지높은 현실이다.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무지와 몽매, 빈궁속에서 허덕이며 패륜패덕, 살인, 강도 등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암흑천지에서 살고있다. 《물질적번영》에 대해 떠들어대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헤매고 극빈자로 전락되여 하루하루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언제인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기아상태에서 고통을 겪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령하 30℃의 혹한속에서도 《자선단체》들이 주는 얼마간의 음식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에 온종일 줄을 서있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그 나라의 국회의원까지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굶주림속에 지내고있는 사실에 대해 그 어떤 변명이 있을수 없다.》라고 개탄하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 실태이다.

비록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매우 안정되고 아직은 살림이 유족하지 못해도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을 꽃피워가는 우리 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 사람들의 정신생활, 도덕생활을 확고히 지배하고 전체 인민이 초소와 직위, 나이는 달라도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있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조선은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나라이며 인민들은 무상치료,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인민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있다. 조선정부는 언제나 인민들을 보살피고 지켜주고있다고 진정어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영광의 나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오직 공화국정권만을 믿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지난 70년간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미래가 담보된 삶을 마음껏 누려왔다.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삶을 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설사 오늘은 풍청거려도 래일을 기약할수 없다면 그러한 생활은 불행한 삶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찬란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어머니품이다. 우리 인민은 지나온 70년간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에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에서도 오랜 세월 전쟁을 모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참다운 사회주의조국이 있었기때문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고있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고 무수한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올수 있었던것이다.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한 민족의 앞날은 암담하지만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풍모가 훌륭한 인민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사상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문화정서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삶의 요구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참답게 실현되고있다. 당과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언제나 필승의 신념과 락관, 풍만한 정서에 넘쳐 살며 일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건전한 정신을 가지게 하며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삶의 기쁨과 래일의 희망,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당의 숭고한 뜻과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문명강국의 체모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날로 개선됨으로써 전체 인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정신도덕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더욱 훌륭히 준비되여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하지만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사상문화생활,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에게는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절대로 통할수 없다.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생활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폐부로 느끼며 귀중한 삶의 요람을 수호하고 빛내일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강위력한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와 더불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최대의 특전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에서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 이 땅우에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정녕 천만인민이 운명을 맡기고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야말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이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우리 조국, 공화국의 품속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장 임 향

김 영 남 동 지 가

스위스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베 른

스위스련방 대통령

알랭 베르쎄각하

나는 스위스련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스위스와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7월 31일 평 양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일군의 기본품성 — 투신력

무슨 일에나 몸을 내대고 달라붙는 힘과 정력의 발현인 투신력.

혁명을 위하여 늘 사색하고 온몸을 혁명열로 불태우는 투신력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기본품성으로 되여야 한다.

투신력, 이는 일군의 징표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능력과 기질을 보충해주는 자양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해 투신하는 사람이 진짜배기 일군입니다.》

일군들의 투신력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과 호소력으로 대중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키며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추동력이다.

적을 공격할 때에는 앞장에 서고 철수할 때에는 맨뒤에 섰으며 위험한 곳에는 남먼저 뛰여든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이 바로 그런 훌륭한 품성을 소유한 지휘관들이였다.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였기때문에 대원들은 그 모범을 따라 적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이 섰던 그 위치가 바로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의 지도일군들이 서야 할 자리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투신력은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간고한 투쟁마당에서,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간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나 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자고 호소만 할것이 아니라 공장과 농촌, 건설장에 나가서 생산전투를 지휘하여야 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걸린 고리들을 찾아내고 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무슨 일을 맡겨도 백발백중으로 해제끼는 진짜배기 혁명가가 되려면 각오와 립장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각오와 립장,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혁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모든것을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것이다. 따라서 투신은 곧 자기희생성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투신과 상반되는 개념인 보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응당 능동적으로 찾아하지 않으면서도 일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외적요인에 빙자하는 책임회피는 보신주의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우리 일군들이 엄격히 경계하여야 할 절대금물이다.

당적량심이 결여된 보신은 혁명은 안중에도 없는 부정적행위이며 매우 유해로운 리기주의사상의 독소이다. 때문에 혁명하는 시대의 일군들은 보신을 철저히 배격하고 뿌리채 불사르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를 우리 일군들은 자자구구 뼈에 새겨야 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첩되는 난관을 靠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는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립장에 서서 투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난관이 조성되면 투신할 대신에 발뺌을 하면서 자기 몸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경제건설을 추진시킬수 없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투신과 보신, 이것은 일군들의 희생성과 비겁성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투신하는 사람은 혁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이고 문제가 제기되면 발뺌을 하면서 보신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며 변질될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일이 잘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마땅히 자기의 보신에서 찾는 사람이 당적량심이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는 일군만이 당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당원이라고 볼수 있다고 강조하신것이다.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에 투신하지 않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이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일군들은 맡겨준 과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기질, 일을 제끼지 못하면 대중의 촌경심은 고사하고 일군의 자격도 없다는 사명감으로 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밤이 열이라도 일을 끝장내는 투신력을 습벽으로 굳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호소로 심장을 불태우며 경제건설대진군에 몸을 푹 잠그는 일군이라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일자리를 푹푹 내는 완강한 실천가로 아름다운 생의 흔적을 남길수 있다.

본사기자 량 순

조선혁명박물관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혁명박물관창립 70돐기념보고회가 7월 31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와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동지, 박물관일군들, 강사,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강사들과 종업원,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광호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혁명박물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수령의 혁명박물관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대국보관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혁명박물관창립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주체37(1948)년 8월 1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창립해주시였으며 여러차례 박물관에 나오시여 사적자료들도 고증해주시면서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기지인 조선혁명박물관이 자리잡은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박물관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체적인 혁명박물관의 본보기, **김일성, 김정일**혁명박물관답게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였으며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조선혁명박물관이 지난 70년간 주체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의 전초선에서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직하게 보답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혁명박물관의 강사, 종업원들과 일군들은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온갖 지성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영상사진문헌, 영상미술작품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진행하였으며 혁명사적물과 자료들을 수많이 발굴하여 진렬전시하고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혁명박물관의 강사들과 일군들이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참관자들에 대한 해설강의와 화선식이동강의를 활발히 벌리였으며 박물관을 혁명력사연구와 선전의 종합기지, 중심거점으로 꾸린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주체조선의 만년재보를 끝없이 빛내이며 천만군민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공헌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들과 종업원,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혁명박물관 초급당위원장 김춘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제1부관장 박경식동지, 부장 최춘희동지, 당창건사적관 관장 권미림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박물관의 전체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영상사진문헌들을 더 밝고 숭엄하게 모시는 사업에 백옥같은 충정을 다 바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력사주의,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학술연구, 진렬전시, 교양사업, 관리운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혁명사적부문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나아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와 우리 당의 령도사를 립증하는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전시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강사들이 정치리론수준과 강의술을 높이고 참관자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해설강의를 생동하고 감명깊게 하며 항일유격대식, 화선식이동강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박물관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보존방법과 경험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부단히 개선하여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혁명사적물들이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언제나 명심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혁명사적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한없이 고결한 풍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수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고 지대를 좀 돌아보자고 하시며 골안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시였다. 공지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묵은 돼기밭을 가리키시며 이 골안만 해도 공지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한치의 땅이라도 묵여서야 되겠는가고, 군인들을 모두 동원하여 묵은밭과 새로 일굴수 있는 땅을 다 일구어 자체로 남새를 심어먹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일군의 충격은 컸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주변인민들이 남새를 생산하여 보내주기때문에 자체로 남새농사를 할 생각을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군인들은 모두 떨쳐나 새땅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군인들이 주변의 새땅을 일구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그곳으로 나가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밤을 꼬박 새우신 그이께서 그런데까지 마음쓰지 말아주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전사들이 땀흘리며 일하고있는데 나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삽을 드시고 작업장으로 향하시였다.

작업장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땅을 일구시였다. 군인들이 거듭 만류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시였다.

휴식시간이였다. 군인들과 함께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어려운 조건에서도 밀영에서 농사를 지어 식량보탬을 한데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남자대장부들만 사는 이 골안에서 농민들에게 남새까지 부담시켜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줘야 한다고, 앞으로 이 골안에서는 남새를 자체로 해결하여 농민들에게서 남새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을 주게 된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군인들이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들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군인들은 골안의 빈땅을 모조리 일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 갖가지 남새들을 심고 정성껏 가꾸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본사기자 김 성 남

당원들은 경제건설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자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신천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원들이 경제건설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신천군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그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지난 1월말 군안의 여러 농장들을 돌아보던 리정철군당위원장은 중요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작업반농사에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이였다. 앞선 작업반들과 뒤떨어진 작업반들의 농사차비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었다.

백석협동농장 제10작업반에서 1월 중순까지 거름실어내기를 전부 끝낼수 있은 비결은 당세포위원장이 당원들을 잘 발동한데 있었다. 어려운 조건으로 거름실어내기가 처지고있을 때 당세포위원장은 당원들에게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전투를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당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매일 1인당 2t이상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니 농장원모두가 따라섰다. 하여 거름운반전투는 예견했던것보다 훨씬 앞당겨 끝나게 되였다.

그런가하면 우룡협동농장에서는 일부 당세포위원장들이 로력타발, 조건타발을 하면서 당원들을 발동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나니 물길가시기작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군당위원장으로 하여금 당정책관철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자면 무엇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의 척후병입니다.》

당원들이 선봉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찾은 군당위원회는 그를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군당일군들이 령도업적단위와 뒤떨어진 단위 당세포들을 맡고 내려가 당세포위원장들과의 사업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초급당일군들이 매일 당세포들에 내려가도록 하고 그 정형을 일별로 장악하였다. 군당책임일군들부터 매주 3차씩 담당한 당세포사업을 지도하면서 당일군들이 당세포들에 내려간 정형을 엄격히 총화하였다. 이 과정에 당일군들속에서 당세포들에 자주 내려가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지도방법이였다. 당세포들에 자주 들어가는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실지 필요한 지도, 실속있는 지도로 되게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일부 군당일군들은 당세포위원장들을 자주 만나보기는 하였지만 영농실태나 료해하고 필요한 영농물자를 해결해주는것으로 그치였다. 그러다보니 당세포위원장들이 사업에서 무엇을 놓치고있는가를 정확히 장악하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일군들이 당세포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주선을 놓치다보니 당세포위원장들도 당원들과의 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지 못하였고 걸린 문제들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당책임일군들부터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장재협동농장 제6작업반에 나간 군당책임일군은 2명의 당원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여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실을 료해하게 되였다. 그는 곧 당세포위원장과 함께 그들의 집에 찾아가 가정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며칠후 군당책임일군이 성의껏 마련한 물자를 안고 다시 찾아와 사뜻이 고무해주고 치료대책도 세워줄 때 당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새로운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세포위원장은 사람과 정으로 마음과의 사업을 심화시킬 때 당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실천적모범으로 당세포위원장들에게 당원들과의 사업방법을 가르쳐주는 군당책임일군들의 사업기풍은 군당일군들로 하여금 지도방식을 혁신하게 하였다.

지난 2월 룡당협동농장 제4작업반에 나간 군당일군은 작업반의 거름실어내기실적이 높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하다는 당세포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현장에서 당원협의회를 열도록 하였다.

당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군당일군은 절절히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어떻게 하나 질좋은 거름을 정보당 20t이상씩 내야 한다. 여기에 당원들이 있으면서 거름원천이 부족하다고 우는소리나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당원들이 발동되면 얼마든지 예비를 찾을수 있다고 본다. …

그의 이야기는 당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들속에서 좋은 안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왔다. 작업반지역에 있는 부양가족들의 집에 사장된 거름원천을 말끔히 걷어내자. 2분조 포전옆의 늪에서 썩은 흙을 파내면 수십t의 거름을 얻을수 있다. …

당원협의회를 통하여 당세포위원장은 당정책관철의 방도는 당원들의 심장속에 있으며 그들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당세포의 전투력이 발휘된다는것을 깊이 절감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세포위원장의 날 윤영을 당세포위원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보고 그에 대한 지도를 짜고들었다.

초급당조직들이 세포위원장의 날 윤영을 계기로 당세포위원장들에게 분공조직과 담화방법,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방법 등을 착실히 배워주도록 하였다.

지난 5월 세포위원장의 날에 예술영화《심장에 남는 사람》에 대한 실효모임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당원들이 당결정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원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였다. 군안의 모든 농장의 작업반들에서 모내기를 열흘동안에 질적으로 끝낸 사실만 놓고서도 영화실효모임의 의의를 잘 알수 있다.

얼마전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위원장들의 상반년기간사업정형을 총화하는 계기를 통하여 긍정적인 소행자료들을 통보해주고 경험토론도 조직하였다. 당세포사업 특히 당원들과의 사업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은 당세포위원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종어사업소에서 미꾸라지서식장건설과 쟁화먹이생산설비설치를 빠른 기간에 끝내여 양어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명사농장 제8작업반에서 축산기지와 남새온실을 훌륭히 개건보수한것을 비롯하여 당정책관철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거둘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군당위원회가 당세포위원장들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품을 들인데 있다.

당원들의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쥐고 방법론있게 짜고든 이곳 군당위원회사업은 본받을만하다.

본사기자 김 순 영

막장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령대탄광 2갱 채탄2중대 당원들

얼마전 우리는 령대탄광 2갱 채탄2중대에 갔었다. 중대의 전투기록장을 펼친 우리는 《막장에서의 36시간》이라는 제목에서 오래동안 눈길을 떨수 없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당원들의 심장은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과업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중순 채탄2중대의 채탄공들이 교대준비를 하고있던 때였다.

뜻하지 않게 어느 한 막장의 100m구간이 붕락되였다. 복구하자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버럭을 처리하고 동발드리우기작업을 해야 하였다. 시급히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빨라서 한주일은 걸려야 하였다.

월계획수행을 며칠 앞두고 그렇게 되였으니 채탄공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였다.

이런 때 당원들이 나섰다.

《당결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당앞에 다진 결의를 무조건 수행해내겠습니다.》

당세포위원장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당원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의 뇌리에 10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비록 나서자란 고향은 다르지만 한생을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갈 일념안고 제대배낭을 탄전에 풀어놓은 당원들,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며 돌파구를 열어제낀 그들이였다.

올해에도 이들은 지난해보다 더 높은 전투목표를 세운데 맞게 불같이 헌신해왔다.

그런데 이쯤한 난관앞에 주저앉겠는가.

당세포위원장은 마음속군복을 벗지 않고 언제나 병사시절처럼 살며 일하고있는 이런 당원들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어 막장에서 열린 당원협의회에서 그는 힘주어 말하였다.

《동무들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는것이 당원의 임무이며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돌파구를 열어나갑시다!》

당세포위원장의 불같은 호소에 중대장 성철남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들은 주저없이 동발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였다. 당원들의 뒤를 채탄공들이 따라섰다.

한쪽에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버럭을 처리하고 또 한쪽에서는 붕락구간까지 동발을 날라오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무거운 동발을 량어깨에 지고 막장길을 쉬임없이 오가는 당원들의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것은 당원들이 기적과 혁신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였다. 하여 붕락구간은 36시간만에 복구되였다.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였다.

이렇게 되여 중대의 전투기록장에 《막장에서의 36시간》이라는 제목과 내용이 실리게 되였다.

당원들이 앞장선 가운데 이곳 중대는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한달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오늘 탄광은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원들이 조국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한몸을 내대며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할 때이다. 당원들이 앞장에서 찍어가는 애국의 자욱자욱은 집단적혁신의 활력소로 되고있다.

이곳 당세포당원들의 실천투쟁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우리는 전진만을 안다

대흥청년영웅광산 무학분광산 전진갱 채준2소대 당원들

대흥청년영웅광산 무학분광산에 전투력있고 일잘하는 소대가 있다. 매월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운반갱확장공사에서도 이름떨친 전진갱 채준2소대이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광산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게 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서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기 소대가 갱을 대표하여 운반갱확장을 위한 고속도굴진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소식은 모두를 흥분시켰다. 막장에 세운 붉은기옆에서 당원협의회가 열렸다. 고속도굴진경기에서 소대의 영예를 떨치는것, 바로 이것이 협의회의 목적이였다.

당세포위원장 한상철동무가 나섰다.

《동무들, 우리는 광산에 몇 안되는 당원소대입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돌격로를 연 전세대 당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습니다. 영웅광산의 당원들답게 광물증산으로 조국을 받들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육탄용사가 됩시다!》

착암기의 동음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굴진실적이 하루하루 올라갔다. 그러나 성차지 않았다.

종전의 세 교대작업을 두 교대로 진행하자니 착암기가 부족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누군가 갱창고에서 사장된 착암기를 본적 있다면서 달려갔다. 가져온 착암기상태는 말이 아니였다.

다른 부속품은 그럭저럭 얻어 맞춘다치고 복좌용수철이 제일 문제였다. 광산에 예비가 없었던것이다.

당세포위원장은 소대의 고급기능공인 방순철동무에게 눈길을 돌렸다. 당세포위원장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있는 그는 두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대가 끝나자 해체한 착암기부속품들을 매만지며 무엇인가 골똘히 궁리하던 그는 드디여 생각해냈다.

벽시계의 태엽을 리용하면 될수 있겠다는것이였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끝내 시제품이 나왔다. 그 복좌용수철을 넣은 착암기가 세찬 동음을 울릴 때 소대원들은 환성을 올렸다.

방동무는 련이어 수십개의 복좌용수철을 만들어냈다. 끊임없는 전진을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된셈이였다. 굴진실적은 훨씬 높아졌고 버럭과 광석량은 날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대장 리명기동무의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산처럼 쌓이는 버럭더미때문이였다. 소대인원이 몇명 되지 않는데다가 밤낮 교대로 착암기를 잡다나니 광석과 버럭을 처리할 로력이 결정적으로 모자랐던것이였다.

버럭처리를 따라세우지 않는다면 소대의 전진속도가 떠질수 있었다.

그것을 알게 된 광부의 안해들이 떨쳐나섰다. 막장에 지원물자를 가지고 찾아와 광부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승리는 찾아왔다. 고속도굴진경기가 끝나던 날 소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려온 결사전의 수십일을 돌이켜보았다. 막장이 깊어짐에 따라 압축공기호스가 모자라게 되자 휴식시간을 바쳐가며 예비를 찾던 일, 당의 믿음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참가했던 당세포위원장이 도착하는 길로 안해와 함께 지원물자를 가지고 막장에 들어온 날 전례없이 굴진실적을 올리던 일…

무슨 힘이 그런 기적을 낳았던가.

분분초초 심장으로 느낀 당원의 자각, 다름아닌 자신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 서야 한다는 의무감, 바로 이것이 기적의 원천이였다.

우리는 답보를 모른다. 전진만을 안다.

이런 비상한 결심안고 오늘도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채준2소대원들은 심장으로 웨친다.

영웅광산이여, 조국이여, 우리 당원들을 믿으라!

본사기자 김 향 란

목숨보다 귀중한 당결정을 지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에서

당원들이 손을 들어 엄숙히 채택한 당결정은 어떻게 집행되여야 하는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당원들의 투쟁이 그 대답을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지난 2월이였다.

운영중인 1호보이라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하였다. 급수계통조절변의 바킹이 허져 수백℃가 넘는 증기가 높은 압력으로 뿜어져나오고있었다. 조금만 더 지체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빚어질수 있었다.

이런 때 당원들의 심장은 어떻게 뛰였던가.

《우리 당원들이 있는 한 보이라는 절대로 세울수 없소. 목숨바쳐 당결정을 지킵시다!》

담당기사 백춘섭동무의 말은 길지 않았다.

당원들인 조기형, 리철수동무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당결정관철을 위해 당원들은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수계통조절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증기로 인하여 앞을 가려볼수 없었다. 하지만 당원들은 목숨보다 귀중한 당결정을 지켜 이악하게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2시간만에 고장을 퇴치하고 보이라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지난 4월 3호보이라의 보수작업을 진행할 때였다.

기존상식으로 보면 열흘이 걸려야 했다. 그러나 혁명적인 총공세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받들려는 이곳 일군들과 당원들은 열흘이라는 기간을 허용할수 없었다.

당원협의회에서는 불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무들, 전세대의 당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습니다. 당중앙의 불빛, 수도의 불빛을 지키는 투쟁의 앞장에 우리 당원들이 섭시다. …》

김인성초급당위원장의 호소에 고팡준직장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엄숙히 손을 들었다.

대류연도계통천정이 무너진 보이라를 보수하는데서 기본은 해체작업을 빠른 시간에 해내는것이였다.

당세포위원장인 김기원, 당원 김충국동무들이 나섰다. 직맹원 신동현동무가 당원들의 뒤를 따랐다. 편안한 길을 택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앞에 결의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채식지 않은 보이라안으로 순간의 주저없이 육박해나갔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여 보수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당원들의 투쟁정신은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교대작업을 마친 종업원들도 보수작업을 앞당겨 끝낼 열의를 안고 전투장에 뛰여들었다.

직장안의 일군들과 당원들이 기수가 되여 진행된 보이라보수전투는 3일이라는 짧은 기일에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이렇듯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닌 당원들이 있어 당결정이 집행될수 있었다.

이곳 당원들의 투쟁은 말해준다. 당결정은 당원의 생명이며 그 생명을 지켜 이 땅의 수많은 당원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설 때 부강조국의 래일은 더욱더 앞당겨진다는것을.

본사기자 김 혁 철

기관차수리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평북종합대학 제2사범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북종합대학 제2사범대학을 찾는 사람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개선된 대학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3호교사며 배구, 롱구, 정구훈련을 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판, 깨끗하게 포장된 구내길…

대학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쓴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수고를 느낄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교수교양사업에서도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최근년간 대학에서 이룩한 이 성과들은 이곳 일군들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관철하고있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북종합대학 제2사범대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대학이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고 교수의 당정책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대학교육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관철하는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수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기본방도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은 일군들은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우선 어렵고 방대한 모든 일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해제낀것이다.

대학에서 자체로 3호교사를 건설한 사실이 대표적실례이다.

몇해전 3호교사건설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2층까지는 교실로 리용하고 3층에는 체육판을 꾸려야 하는 3호교사건설은 참으로 아름차고 방대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일군들은 교사건설을 자체로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최영덕학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3호교사건설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돌격전을 벌려 한해동안에 건설하자고 호소하였다.

승보경초급당위원장은 학장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단순히 건물이나 일떠세우고 교구비품이나 갖추어놓는 실무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학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학생들을 조국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우기 위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일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학장과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세멘트와 흔석, 목재 등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면서 앞채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교직원들은 하루수업을 마치면 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벽체축조에 필요한 블로크를 찍었다.

일군들은 시공주가 되여 요구성을 높이면서 골조공사와 벽체미장 등 모든 공사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한해동안에 3호교사를 일떠세우고 교실과 체육판을 훌륭하게 꾸려였다.

대학에서는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1호, 2호교사, 강당 등 모든 건물들에 철판지붕을 씌우기 위한 돌격전을 벌려 단 몇달동안에 해제낌으로써 대학의 면모를 훌륭히 전변시키였다.

자체의 힘으로 운동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구내길을 포장한 사실을 하나 더 보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운동장의 면모를 일신하고 구내길을 포장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세멘트와 흔석을 마련하였다.

교직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교정을 꾸리는 사업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짧은 기간에 운동장을 일신하고 구내길을 포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정문도 현대적인 미감이 나게 개건하면서 교육환경을 훌륭히 일신시키였다.

모든 강의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고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한 사실을 놓고서도 이곳 일군들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관철하고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다.

몇해전 대학에서는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내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후원단체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짧은 기간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면서 60개의 강의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였다.

원격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학에서는 이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가입자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놓았다.

또한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지난 10년간 수많은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 10월8일모범교수자를 배출하였으며 전국적인 정치사상과목교수경연과 과목별교수방법토론회, 전국교육과학토론회들에 교원들을 출연시켜 대학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게 하였다.

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박사학위와 부교수학직, 석사학위를 소유한 교원들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 학생들의 실력은 종전보다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최우등생대렬이 늘어났으며 여러 전시회와 발표회 등에 참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기숙사안팎과 식당을 개건하고 후방사업을 개선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곳 일군들이 해놓은 일들을 다 적자면 끝이 없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관철할 때 얼마든지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집짐승사양관리를 실정에 맞게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농사를 잘하는것과 함께 축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 어느 작업반에 가보아도 집짐승기르기에 품을 들이고있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관리위원장 로승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본새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축산도 과학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고있는것이다.

축산작업반의 경우를 놓고보자.

작업반에서는 몇해전부터 많은 품을 들여가며 여러개의 호동과 강냉이창자, 건조장, 먹이가공실 등을 다시 건설하여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그리고 먹이보장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축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그렇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잘되는것은 아니였다. 축산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것도 매우 중요하였다. 이로부터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사양관리를 집짐승들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종자돼지의 영양관리를 잘하고있는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종자돼지를 기르는 목적은 새끼생산에 있다. 그러므로 비육돼지처럼 사양관리를 하여서는 새끼생산을 늘일수 없었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것과 함께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도서들도 적극 탐독하는 과정에 작업반원들이 찾아낸 방도는 종자돼지에게 광물질과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먹이는것이였다.

사실 주변에는 광물질먹이원천이 특별히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손덜고 나앉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조가비같은것을 구입해오기도 하였으며 탄재도 적극 리용하였다. 이와 함께 영양가와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애국풀》을 비롯한 여러가지 먹이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었으며 낟알짚도 허실하지 않고 모두 모아들이였다.

작업반에서는 이렇게 품들여 마련한것들을 성장단계별에 따라 정한 먹이단위에 맞게 혼합한 다음 어느 한 균으로 처리하여 먹이였다.

결과 종자돼지들이 광물질과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골고루 섭취할수 있게 되였다.

작업반에서는 돼지가 자라는데 따라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그중의 하나가 종자돼지들이 일정하게 크면 다른 호동으로 옮겨 기르는것이였다. 작업반에는 2개의 돼지호동이 계단식으로 위치하고있었다. 이 호동들은 비슷하게 지은것 같았지만 우에 있는 호동의 온도보장조건이 더 좋았다. 그리고 돼지우리의 면적도 아래에 있는 호동보다 넓었다. 이로부터 작업반에서는 70일정도 된 돼지들을 아래호동에서 우에 있는 호동에로 옮기군 하였다.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놓고 돼지우리에 대한 청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사양관리를 잘하기 위한 작업반원들의 노력은 끝이 없었다. 이렇게 종자돼지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데 큰 힘을 넣은 결과 작업반에서는 새끼돼지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농장의 다른 작업반들의 비육분조들에서도 과학축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집짐승사양관리에 품을 들어 해마다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몰랐다. 그들은 집짐승들의 활동 및 생활습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부단히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실 화

첫 전 투 임 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오늘도 눈물겹게 추억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들이 입고 싸운 솜옷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한벌한벌의 솜옷에는 얼마나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스며있었던가.

중구역 류성동에 사는 김경애전쟁로병은 전쟁의 첫해에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직접 솜옷을 인수해올데 대한 전투임무를 받고 포연속을 뚫고헤치던 그날의 추억을 오늘도 잊지 못해 전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사들에게 틀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인민군병사들에게 공급할 솜옷을 싣고 만포를 향하여 달리는 렬차가 어느 한 역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뒤를 따라 한대의 자동차가 급정거하며 멎어섰다.

목적지까지 제때에, 정확히 솜옷을 인수하기 위하여 렬차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내내 자동차를 타고 달려온 처녀군관 김경애는 역장을 찾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다. 렬차의 마지막방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것이다. 그는 무작정 그쪽을 향하여 종종걸음을 내짚었다.

아니나다를가 이상한 그림자들이 어둠속에서 얼른거렸다. 그는 권총을 뽑아들며 힘껏 소리쳤다.

《손들엇! 반항하면 쏜다!》

렬차방통을 분리시키기 위해 안깐힘을 쓰던 놈들은 황급히 두손을 쳐들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러나 이내 처녀가 혼자인것을 알아챈 두놈은 미친개처럼 그에게 덤벼들었다. 시퍼런 비수가 그를 향해 내리꽂히던 순간 뒤미처 달려온 호송군관과 련락병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놈들을 제압하였다. 위기는 이렇게 가셔졌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렬차가 만포에 도착할 때까지 격발기를 제낀 권총과 기관단총을 손에서 한시도 놓지 않고 렬차의 후위를 보장하며 전속으로 자동차를 몰았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 렬차는 만포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받들어 솜옷은 한벌의 루실도 없이 인수해왔지만 김경애에게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이 어린 솜옷들을 한시바삐 싸우는 병사들에게 보내주어야 할 사명이 다름아닌 후방총국 일군인 자기자신에게 지워져있었던것이다.

군인들은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귀중한 전우들이며 혁명동지들이라고, 솜동복을 인수하는 사업은 우리 군인들을 위한 최대의 중대사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그는 애어린 련락병과 함께 솜옷이 가득 실린 자동차를 타고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전선길에 나섰다.

눈덮인 산발을 넘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김경애에게는 잊을수 없는 주체39(1950)년 11월 그날의 일이 어제일인듯 되새겨졌다.

당시 조선인민군 후방총국에서 사업하고있던 그는 함께 일하고있는 군관과 최고사령부 지휘처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자신께서 오늘 동무들을 부른것은 중요한 전투임무를 맡기자는것이라고 하실 때 김경애는 저도모르게 긴장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한치의 땅을 놓고 피어린 결사전이 벌어지는 조국의 고지들을 그려보며 마음의 신들메를 조이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밖의 교시에 저도모르게 깜짝 놀랐다.

동무들도 알고있는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는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아직 솜동복을 입히지 못하였다고, 다해진 여름군복을 입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사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그의 두볼은 어느새 눈물로 젖어들었다.

우리는 전쟁이 아무리 어렵고 간고하다 해도 전사들에게 꼭 솜동복을 입혀야 한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당부에 그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동무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는 총이나 대포도 귀중하지만 그보다도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그들이 헤쳐갈 멀고 험한 길을 그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뜨겁게 이르시였다.

건강한 몸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크나큰 믿음과 정에 넘쳐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김경애에게는 마치 온몸에 나래라도 돋친듯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친아버지이시였다.

이국땅에서 나서자란 그에게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시고 그들남매를 한품에 안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바로 그분께서 주신 첫 전투임무였다.

그는 어깨우에 빛나는 두개의 별을 다시금 무겁게 안아보았다.

조국이 준 믿음의 별, 인민이 사랑하는 복무의 별, 그 별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무한히 충직한 군인의 애국충정과 영웅성으로 빛나야 한다는 신념과 결사의 각오를 안고 19살 처녀군관은 병사들을 찾아 먼길을 이어갔다. 북변의 사나운 강추위가 사정없이 대지를 얼구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전선길을 달리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뜨겁게 달아올었다.

차가 떠나서 한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멀리서 적기의 동음이 들려왔다. 재빨리 정황을 판단한 그는 즉시에 차를 세우고 솜옷들을 부리웠다.

그리고는 주변의 나무들밑에 솜옷통구리들을 따로따로 갈라놓았다. 소이탄의 불찌가 하나라도 솜옷들에 튀면 삽시에 불길에 휩싸일수 있었던것이다.

적기들의 맹폭격을 뚫고 차에서 부려온 마지막솜옷통구리를 안전한 곳까지 날라다놓고 한몸으로 덮는 순간 경애는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다.

폭풍에 날려 공중으로 휘뿌려졌던 그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에는 낯모를 사람들의 눈빛이 근심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적기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래마을에서 달려온 인민들이였다.

일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몸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제서야 김경애는 허리는 물론 다리에도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솜옷은?…》

그의 가날픈 물음에 련락병은 젖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다 무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어서 떠나자요.》

나직하나 강단이 느껴지는 처녀군관의 목소리가 그를 후송할 준비를 서두르던 련락병과 운전사의 걸음을 멈춰세웠다. 바로 이때 마을의 한 녀인이 땀에 젖어 그들에게 달려왔다.

처녀군관의 다친 허리에 무명천을 한바퀴 또 한바퀴 감아주며 녀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란 이것밖에 없군요. 부디 몸성히 잘 싸워주세요.》

고향집혈육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던가.

인민군대를 돕는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응당한 도리라고,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하던 못 잊을 사람들의 부탁이 가슴을 두드릴수록 그에게는 바로 그 시각도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하루빨리 솜옷을 입히시려고 마음쓰고 계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위대한 어버이의 혈연의 정이 바느질 한뜸에도 귀중히 어려있는 솜옷, 그것은 눈비도 불비도 다 막아주고 무비의 용맹과 위훈을 낳게 할 세상에 다시 없을 무기였다.

김경애는 허리에 감은 무명천을 더 힘껏 조이였다.

적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은 때없이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 무엇도 그들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상상할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파로운 령을 넘었을 때였다. 마지막으로 갈아끼운 예비차바퀴까지 물러앉았다.

분초를 다투는 시계의 초침소리가 김경애에게는 점점 우뢰소리처럼 들려왔다.

임무수행에서 흥정이란 있을수 없다!

그는 무슨 힘으로 차에서 내렸고 어떻게 생눈길을 헤쳐 적들의 파괴된 자동차를 찾아냈는지 자기자신도 알수 없었다. 오직 하나 심장이 뛰는 한 당과 수령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군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뿐이였다.

바로 앉아있는것자체도 기적인 그가 파괴된 적들의 자동차에서 쓸만 한 차바퀴를 찾아냈다며 그야말로 눈사람이 되여 나타났을 때 운전사와 련락병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가.

사랑의 솜옷들을 안고 싸우는 병사들을 찾아가는 길은 이렇게 한치한치 앞당겨졌다.

마침내 그들은 사선의 고비를 넘고넘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였습니다.》

19살 처녀군관의 보고는 짧았다. 그러나 임무수행이라는 그 길지 않은 말에는 얼마나 크나큰 전사의 위훈과 영예가 깃들어있는것인가.

그날에 입은 부상의 후과로 김경애전쟁로병은 영예군인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병의 공훈을 잊지 않으시고 전후에도 그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도록 그의 병치료를 위해 각별한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김경애전쟁로병은 말했다.

《전쟁의 3년간 그 갈피갈피에 기록된 빛나는 승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떼여놓고 결코 생각할수 없습니다. 전쟁의 첫해에 벌써 승리는 우리 조선의것이였습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오늘도 이어가는 화선천리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할 때 가지게 됩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진행된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속에는 박명식, 윤숙금전쟁로병을 비롯한 로병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있다.

지난 시기 예술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가슴속에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새겨준 로병기동예술선동대원들.

그들이 불비속을 헤치던 그때처럼 청춘의 열정을 안고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공연무대를 펼칠수 있은것은 혁명적락관주의를 지니였기때문이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은 전투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고 춤도 추면서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였다.

불타버린 고지에 악기를 만들만한 변변한 소재 하나, 공구 하나도 없었고 악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었지만 인민군병사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적들의 포탄파편으로 손칼과 대패날, 끌을 만들고 나무와 전선줄을 가공하여 훌륭한 악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민군병사들은 화선악기에 맞추어 포연서린 고지마다에서 신념의 노래, 락관의 노래를 불렀다.

인민군용사들이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고 높이 울린 노래소리는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고지마다 승리의 함성을 불러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받아안고 영웅적투쟁으로 재더미를 헤쳐나가던 나날에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변함없이 높이 울렸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리던 사회주의대건설시기에도 그리고 형언할수 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시기에도…

전화의 그 나날에 부르던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조국수호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우리의 로병들은 화선배낭을 벗지 않고 년로한 몸이지만 우리 당을 따라 변함없이 화선천리길을 걸었다.

세월이 흘러 전쟁로병들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였다. 하지만 총창을 비껴들고 전선길을 달리던 그 정신, 그 기백은 살아있었다.

포화속을 헤치던 그 나날처럼 한생을 보람있게 빛내이자.

이런 불같은 마음을 안고 전쟁로병들은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할 구체적인 방도들을 의논하였고 기동예술선동대를 무어 사회주의건설전투로 들끓고있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로병기동예술선동대가 무어졌고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 이들의 공연활동이 시작되게 되였다.

처음 공연활동에서는 애로도 있었다. 그러나 전쟁로병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며칠밤을 밝혀가며 대본을 준비하였고 불비쏟아지던 화선에서의 경험을 살려 공연을 준비하였다.

해당 시, 군당위원회와 공장, 기업소당조직들, 예술부문 전문일군들이 전쟁로병들이 준비하는 종목들이 사상예술성과 호소성이 높은 작품으로 완성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싸우는 고지에서 부르던 신념과 락관의 노래를 예술선동의 북소리에 담아 전국각지의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전쟁로병들.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가 울리는 곳마다에서 혁명선배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에 반드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자는 격조높은 함성이 터져나왔고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로병들이 부르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합창하며 조국보위초소에 설것을 다짐하였다.

비록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였어도 훈장이 빛나는 군복을 입고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던 그 정신으로 예술선동활동을 벌리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어머니당의 온정속에서 수도 평양에서 또다시 진행된 뜻깊은 대회에 참가한 로병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서로서로 손들을 마주잡고 가슴속진정을 터치였다.

병사의 발걸음 영원히 멈치 말고 정보로 힘차게 걸어가자고.

본사기자 김 진 욱

나는 전쟁로병이다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을 때마다 나는 가렬처절했던 1950년대의 조국수호자의 한사람, 전쟁로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하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들이 부럽다고 하지만 나는 조국이 이 땅의 매 인간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인생의 귀중한 시절을 보낸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쟁로병들은 불타는 전호가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를 부르던 그때처럼 로심을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줄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나는 14살에 군복을 입었다. 가증스러운 적폭격기들이 38°선으로부터 머나먼 북변에 자리잡은 내 고향땅에까지 날아들어 학교와 마을들을 불태우고 내 동무의 아홉식구를 무참히 살해한것은 철부지인 나의 가슴속에도 불같은 적개심과 복수심을 불러일으켰다.

군사동원부에 끈질기게 드나들던 끝에 나이를 불구어가지고 입대한 나는 어깨에 메면 발뒤꿈치까지 내려오는 보병총끈을 꽉 부여잡은채 고향친구와 이렇게 다짐했다.

《우리 조국땅을 불태운 침략자들을 모조리 때려부시기 전에는 이 총을 놓지 말자.》

내가 안동제12보병사단의 한 중대에 배속되였을 때 중대장은 나를 자기의 련락병으로 임명하였다.

나는 용감한 중대장과 포연탄우를 헤치며 어엿한 병사로 성장하였고 용감하면 총알도 피한다는 말의 의미도 알게 되였다.

나는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였으며 그 나날에 세운 위훈으로 1952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뜻깊은 날에 군공메달을 수여받았다.

내가 부상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그해 여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꼬마병사들을 후방으로 보내여 공부시킴으로써 앞으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울데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전선을 떠나 만경대혁명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되였다.

침략자들을 때려부신 위대한 전승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우리 조국은 얼마나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섰는가.

온 나라가 전후복구건설로 들끓던 때에 김책공업대학(당시)에서 공부한 나는 한생을 자동화부문에서 일해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전면적자동화의 본보기가 창조된 이후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쏟으면서도 나는 전화의 나날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목숨바친 전우들을 언제 한번 잊은적이 없다.

그들을 대신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기 위해 온넋을 바쳤으며 조국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고싶은 마음에서 자동화분야의 기술도서들도 여러권 집필하였다.

나는 이번까지 여러차례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였다.

당에서 우리들을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 때마다 나는 화선천리 전호가에 나를 세운다.

나는 전쟁로병이다. 위대한 년대의 조국수호자이다.

이런 긍지와 자랑, 후대들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깊이 새기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화선천리길을 힘차게 이어갈것이다.

보통강구역 석암동 전쟁로병 리 기 완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진행

【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7월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안익산 조선인민군 륙군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도균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완화와 전쟁위험해소를 위해 제기되는 현안문제들이 진지하게 론의되였으며 앞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창건 91돐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연회 마련

【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인민해방군창건 91돐에 즈음하여 김도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7월 3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인민무력성 부상 륙군상장 김형룡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항공군대장 오금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 조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는 리진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 개막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가 개막되였다.

이번 발표회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과학탐구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학습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연구완성한 수백건의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7개 분과로 나뉘여 진행되는 발표회에서는 해당 전공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론문의 학술적가치 등을 심의하게 된다.

개막식이 7월 30일 평성공업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윤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배충일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발표회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 쌓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모든 대학생들을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유능한 인재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발표회기간 참가자들이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전공부문의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며 서로의 학습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널리 일반화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모든 대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첨단과학기술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발표회는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진정을 바쳐

맹산군가내축산관리위원회 제2작업반원들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극진히 돌봐주고있는 사람들속에는 맹산군가내축산관리위원회 제2작업반 반장 임영실동무와 작업반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충실하여온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것은 후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인민군대후방가족인 작업반장 임영실동무가 전쟁로병들의 친딸이 될 결심을 품게 된것은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안고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나는 로병들을 바래우며 그는 우리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도 전쟁로병들을 위해 진정을 다바칠 결심을 다지였다.

고기생산을 늘여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에도 이바지하자고 절절히 터놓는 그의 결심을 작업반원들도 적극 지지해나섰다. 하여 그의 작업반에는 읍지구의 수십명 전쟁로병들의 이름과 주소, 생일 등이 적힌 일지가 생겨나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종전보다 두배나 큰 축산기지를 일떠세운 그들은 어떻게 하나 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해 힘껏 일했다.

몇명 안되는 녀성로력으로 일손이 딸리는 때가 많았지만 임영실동무와 작업반원들은 축산을 잘하는 여러 단위들을 찾아가 좋은 경험도 배우고 짬시간마다 축산과 관련한 기술도서들을 탐독하면서 돼지의 특성과 먹이문제, 여러가지 병들과 그 발생원인들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 나날 임영실동무는 어떤 병도 자체로 정확히 진단하고 시급히 대책을 세우는 유능한 수의사와 같은 기술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지금은 다른 단위들에서 돼지기르기경험을 배우러 찾아올만큼 척척박사가 되였다.

그만큼 그는 축산에 지혜와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해인가 무더운 여름철 부업지를 돌아보겠다며 떠난 작업반장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작업반원들은 그를 찾아 길을 떠났다.

부업지가 있는 야산에 오르던 그들은 몇걸음앞 나무기둥에 기대여 솔곳이 잠에 든 임영실동무를 보게 되였다. 그의 손에는 보풀이 인 로병일지가 들려있었다. 전승절을 맞으며 읍지구의 수십명 전쟁로병들에게 공급할 고기량이며 식료품들의 가지수를 꼼꼼히 적어놓은것을 들어다보는 작업반원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산판을 오르내리며 돼지먹이를 마련하느라 애쓰는 작업반장이 얼마나 힘에 부쳤으면 산길에서 다리쉼을 하다 잠들었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인기척에 눈을 뜬 임영실동무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해마다 돼지마리수를 늘여온 보람이 있어 이번 전승절부터는 로병가정들에 대한 공급량도 늘일수 있을것 같아요. 로병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늘 로병들생각뿐인 작업반장의 말에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우리 반장동지는 로병들밖에 몰라.》

그날 그들은 밤늦도록 필요한 먹이보장대책을 세우고 로병가정들에 대한 고기공급계획까지 다 세우고야 퇴근길에 올랐다.

지난 몇해동안 이들은 이렇게 돼지를 키워 고기생산을 늘이였고 읍지구의 수십명 전쟁로병가정들에 대한 고기공급을 정상화하였다. 그런 그들을 맹산군의 전쟁로병들은 우리 딸이라고 정담아 부른다.

오랜 세월 전쟁로병들을 지성다해 돌봐준 임영실동무와 그의 작업반원들의 소행은 참으로 아름다왔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더욱 울린것은 머나먼 산골군의 자그마한 작업반에도 우리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로병들의 친딸로 사는 녀인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였다. 지금도 임영실동무가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로병들이 기뻐할 때 더없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군 합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는 이런 효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본사기자 오 은 별

따뜻한 정 차넘치는 화목한 대가정

각지 로병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나날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천구역 평천1동 7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후대전쟁로병은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에서 보낸 보름간의 보양생활을 담은 편지를 보내여왔다.

즐거운 보양생활의 이모저모가 담겨져있는 편지에는 구역안의 전쟁로병들의 친자식이 되여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고있는 평천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이 보양소에 가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마음을 썼고 보양소까지 직접 데려다주었으며 그곳 일군들을 만나 로병들을 잘 돌봐줄것을 부탁하였다.

보양생활을 하고있는 기간에도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직접 보양소에까지 찾아와 로병들 한사람한사람을 다 만나 불편한것은 없는가를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로병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이것은 다 어머니 우리 당의 덕입니다. 우리 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곳에서 보양생활을 할수 있으며 이처럼 훌륭한 일군들이 태여날수 있겠습니까. 정말 〈로동당 만세!〉, 〈우리 식 사회주의 만세!〉가 절로 나옵니다.》

보통강구역 서장동의 허성직, 강금순부부도 대성구역 룡흥2동에 살고있는 홍인숙전쟁로병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극진히 돌보아주고있다.

오랜세월 전쟁로병의 건강에 필요한 수많은 약재들을 보장하여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병할머니의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주어 생활에서 불편을 모르도록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그들부부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우지만 전쟁로병을 존대하고 돌보아주는 그들의 고결한 정신은 로화를 모른다.

로병의 여든번째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준 소행을 두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려는 마음뿐이라고 자기의 진심을 터놓았다.

그들은 전쟁로병뿐아니라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박명철동무의 생활도 세심히 돌보아주고있다고 한다.

우리가 받은 편지들에는 정주시 남철동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강인봉로인의 건강을 수년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는 정주시의약품관리소 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도 적혀있었다.

그들은 우리 당이 아끼는 전쟁로병인데 우리가 돌보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 지성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로병을 찾아와 치료에 필요한 보약들을 보장해주며 전화의 나날에 발휘하였던 투쟁정신으로 병과의 싸움에서도 꼭 이기자고 고무해주었다.

로병은 편지에서 정성이 명약이라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온갖 성의를 다하여주는 참된 미풍선구자들이 있어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진심을 터놓았다.

로병들이 보내온 편지들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가정이 되여 화목하게 사는 우리 사회, 우리 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열렬한 보답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김 송 이

해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자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기까지

모란지도국에서

모란지도국에서 지난해의 년간사업총화를 한 뒤끝에 있은 일이다.

처장 송철권동무는 책임일군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에 정말 고마왔습니다.》

느닷없이 하는 말이였지만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책임일군은 《앞으로 더 잘해봅시다.》라고 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지난해에는 사업에서의 성과뿐아니라 해양체육월간사업에서까지 앞장에 서게 된 자랑도 꽃피운 송철권동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이 많기때문에 누구나 다 수영을 활줄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체육을 좋아한 송철권처장은 롱구, 배구, 축구, 정구 등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지도국선수로 출전했었다. 그런데 수영에서는 뒤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 어느날 지도국책임일군이 처장에게 수영을 배울데 대한 뜻밖의 과업을 주었다.

수영만은 자신없다고 하는 처장에게 책임일군은 말하였다.

나도 몇년전에는 수영을 할줄 몰랐다. 하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배우기 쉬운것이 수영이였다. 해양체육월간사업에서도 우리 일군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주고 사업의욕을 높여주는 좋은 체육종목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영을 배우면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에도 참가할수 있다. 목표를 이렇게 세우자.

책임일군의 요구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후 처장과 함께 창광원수영장으로 간 그는 직접 물에 들어가 50m주로를 단숨에 헤염쳐가는 모습을 보여준것이다.

송철권동무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자기보다 20년이상이나 나이가 많은 책임일군도 저렇게 헤염을 잘하는데 나라고 왜 수영을 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무슨 일에서나 지지 않으려는 승벽심이 되살아났다.

지도국적으로 수영을 제일 잘하는 한 부원의 지도를 받으며 팔다리동작훈련부터 이악하게 했다. 물속에서의 호흡훈련은 또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자유영기초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련마한 결과 보름만에는 50m주로를 헤염칠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날과 날이 흘러 처장의 수영수준은 나날이 높아갔고 마침내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에 모란지도국의 단체경기선수로 참가하여 자기 단위가 2위를 하는데 기여할수 있었다.

년간사업총화가 있은 그날에 송철권처장이 책임일군을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를 한것은 바로 이때문이였다.

지도국앞에 말겨진 과업수행을 위해 드바쁜 속에서도 이렇듯 당정책을 받들어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 수영바람을 일으키고 해마다 해양체육월간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온 이곳 책임일군들이다.

올해에도 당조직의 지도밑에 해양체육월간사업에 기울인 지도국책임일군들의 열정은 변함없었다. 특히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모든 부서 일군들부터 각성시키고 선수들의 훈련보장을 위한 대책도 확고히 세워주는 한편 지도국정무원, 종업원들의 응원열의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떠밀어주고…

품을 들인것만큼 성과가 이룩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 단체전 결승경기에서 200여명의 지도국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의 드세찬 응원속에 이곳 선수들이 단연 1등을 한것이다.

이때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모은것은 지도국책임일군의 이신작칙이였다.

올해의 해양체육월간에 시간을 짜내면서 누구보다도 수영훈련에 힘을 넣어온 그는 단체전 결승경기에 출전하여 50m헤염기록을 예선단계경기때보다 3초나 앞당김으로써 지도국의 우승에 한몫 단단히 하였다.

이 성과로 하여 모란지도국은 성, 중앙기관일군들의 대중체육경기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새 기록을 자기 연혁사에 자랑차게 새기였다.

지난해에는 단체경기에 참가하였다면 올해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에서는 개인경기에 지도국선수로 참가하여 결승단계에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둔 송철권처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수영이 저의 생활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였습니다. 그만큼 수영이 가져다준 덕은 매우 큽니다. 수영을 배우고 즐겨하게 되면서부터 지난 시기 사업에까지 지장을 주던 불면증이며 고혈압증상이 흔적없이 사라지고 일욕심은 나날이 왕성해지니 말입니다. 수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사업과정에 쌓였던 피로를 풀고 앞으로의 사업설계도 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계속하여 처장은 오늘과 같이 선수로 되기까지의 나날에 헤염기술만을 배운것이 아니라고, 해양체육월간사업에서도 늘 앞장서는 책임일군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서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를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대중체육사업은 중요한 당정책관철사업이며 그 성과여부도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모란지도국에서처럼 일군들이 체육사업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언제나 이신작칙하며 자기 단위의 체육열의를 부단히 높여나갈 때 그만큼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해가는 대중의 기세는 더더욱 앙양되고 부강조국건설에서도 놀라운 혁신이 창조될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야외수영장을 잘 꾸려놓고

남포항에서

최근년간에 남포항에서 야외수영장을 훌륭하게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다.

남포항에 야외수영장이 훌륭하게 꾸려지게 된데는 모든 근로자들을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해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열정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영관과 수영장을 잘 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야외수영장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전투가 시작된것은 지난해 5월이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남포항에는 체육관안에 자그마한 수영장이 있었다. 실내수영장이 협소한것으로 하여 많은 종업원들이 동시에 수영을 할수 없었고 또 헤염을 치면서도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항책임일군들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수영은 사람들의 근육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체력을 튼튼히 단련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것만큼 수영을 장려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지 않았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거리가 먼 단위의 실정을 놓고 자책감을 심각하게 느낀 책임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었다.

(야외수영장을 새로 번듯하게 건설하자. 그래서 모든 종업원들이 마음껏 수영을 할수 있게 하자.)

항책임일군들은 야외수영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사실 본신혁명과업수행을 하면서 여러 대상건설도 해야 했던 항의 형편에서 야외수영장건설까지 하자니 헐치 않았다.

책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자신들이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부족되는 자재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고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웠다.

수영장건설이 곧 자신들을 위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항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집단적인 헌신에 의하여 마침내 짧은 기간에 모래터까지 갖춘 야외수영장이 번듯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항책임일군들은 야외수영장을 훌륭하게 꾸려놓은데 맞게 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야외수영장을 적극 리용하도록 하는 한편 7, 8월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단위별수영경기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우리와 만난 항의 어느 한 종업원은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 야외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니 쌓였던 피로가 금시 풀리는것만 같다고, 앞으로 수영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도 혁신을 일으켜나가겠다고 결의다지는것이였다.

우리에게 남포항 직맹일군은 이렇게 훌륭한 야외수영장을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한여름에는 주변의 많은 어린이들과 근로자들도 이곳을 찾아온다고 하면서 올해 7, 8월해양체육월간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할 종업원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자랑담아 이야기하였다.

본사기자

여러가지 헤염방법을 소유하도록

덕천시의 학교들에서

7, 8월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전국각지의 학교들에서 수영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덕천시의 학교들에서도 그 열의가 대단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수영하는 법을 배워주어 그들이 웬만한 강들은 다 헤염쳐 건늘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덕천시의 일군들은 시안의 학교 학생들이 몸단련에 좋고 강의한 의지와 용감성을 키워주는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2월16일학생소년궁전의 수영관과 덕천시의 야외물놀이장을 잘 꾸리고 거기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시안의 여러 학교의 일군들도 7, 8월해양체육월간을 계기로 해양국인 우리 나라에서 누구나 해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바다와 강의 정복자로, 건장한 체력과 굳센 의지의 소유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학생들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수영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학생들에게 수영의 기초원리와 상식들, 헤염기초동작을 알기 쉽게 가르쳐줄수 있게 과정안을 잘 만든데 기초하여 수영수업을 교육학적요구대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여러 학교들에서 활발히 진행되였다.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육체적준비정도에 맞게 물에 들어가있는 시간을 처음에는 짧게 정했으며 점차 물에 익숙되는데 따라 수영시간을 늘이도록 하고있다.

담임교원들부터가 실천적모범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주고있으며 지난 시기 일부 학생들이 한가지 수영방법을 익힌데 만족해하던 편향을 극복하고 그들모두가 여러가지 수영방법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매 학생들의 수영능력을 판정한데 기초하여 그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목표를 단계별로 명백히 세우고 매일 과정안대로 수영수업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과외시간에도 2시간씩 집중적으로 수영훈련을 시켜 수백m의 강도 능히 헤염칠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학교들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였다.

얼마전에도 시의 여러 학교들에서는 2월16일학생소년궁전의 수영관에서 학급별수영경기, 학년별수영경기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경쟁의욕을 높여주었다.

결과 학생들의 수영수준은 몰라보게 높아지고있다.

7, 8월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애쓰고있는 시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앞으로 더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7, 8월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수영교육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중구역 창광고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서해명승에 넘치는 희열과 량만

룡수포해수욕장을 찾아서

지금 서해명승 룡수포해수욕장은 7, 8월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각지에서 찾아오는 근로자들로 하여 흥성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룡수포해수욕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꾸려주신 해수욕장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해수욕장에서 수영활동을 적극 벌리며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해가고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서해갑문을 지나 얼마쯤 차를 타고 달리느라니 우리의 눈앞에는 푸른 물 출렁이는 바다와 무연한 모래불이 펼쳐진 룡수포해수욕장이 안겨왔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은 해수욕장으로 친절하게 안내하였다.

자기의 수영기술을 뽐내기라도 하는듯 여러가지 수영법으로 기세좋게 파도를 헤가르는 청년들, 아롱다롱한 각종 구명대를 가지고 물장구를 치며 좋아라 웃고떠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뿐이 아니였다. 여러가지 산뜻한 색갈로 단장되여 질서있게 전개된 수십개의 이동봉사매대들과 야외식당들, 천막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해양체육월간에 하얀 모래불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며 희열과 량만에 넘쳐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맑은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은 먼저 룡수포앞바다의 지대적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예로부터 룡의 대가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포구라는 뜻에서 룡수포라고 불리운 이곳은 바다물이 맑은것이 특징인데 룡궁으로 통하는 큰 구멍에서 맑은 물이 항상 솟구쳐오른다는 전설까지 전해져온다고 한다.

원래 서해는 동해와 달리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심하지만 룡수포앞바다는 그 차이가 심하지 않고 백사장으로부터 100여m까지도 바닥이 고르로우며 앞에 있는 섬이 센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기때문에 누구나 해수욕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는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룡수포해수욕장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표식비로 안내하는것이였다.

이곳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지게 된데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년전인 주체82(1993)년 9월에 이곳을 찾으시여 해수욕장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주체90(2001)년 5월 이곳을 찾으시여 바다물의 염도와 수질상태, 해수욕장의 물깊이는 물론 백사장의 모래와 자갈의 배합정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룡수포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고 안마치료에도 좋은 아주 리상적인 백사장이라고, 해수욕장에 간단한 편의봉사시설과 급양봉사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해수욕을 할수 있도록 교통운수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에 떠받들려 지난날 량만부자놈들의 놀이터로 리용되던 룡수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이 어려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보니 백사장의 모래 한줌, 해안가로 끝없이 파도쳐오는 물갈기까지도 정녕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우리에게 룡수포해수욕장관리소 소장 로용현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올해 해수욕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관리소에서는 넓은 면적에 대한 백사장모래펴기를 진행하였으며 이동봉사매대들과 근로자들의 휴식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 오락장들, 야외식당 등을 인민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새로 전개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새기며 우리는 금방 해수욕을 하고 배구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을 만나 소감도 들었다.

남포시에서 온 어느 한 기업소 로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바다물에 몸을 푹 잠그고 한바탕 헤염을 치고나면 몰렸던 피로가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원래 전 헤염을 잘 칠줄 몰라 지난 시기에는 기슭에서만 맴돌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주 와서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 이제는 먼 바다에까지 헤염쳐나갈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송화군의 어느 한 학교 교원, 학생들도 만나보았다.

교원은 우리에게 학교에서는 해마다 7, 8월해양체육월간에 강을 리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영법을 가르쳐주는 한편 바다에 나와 학생들을 강과 바다의 정복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룡수포해수욕장에서 헤염을 치니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에게 한 학생은 강에서 수영을 할 때와 바다에서 헤염을 칠 때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면서 해양체육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여기에 와서 끊임없이 파도치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수영을 자주 하는 과정에 몸의 근육들이 조화롭게 발달되고 머리가 거뜬해져 막혔던 사색의 실마리도 술술 풀린다고 하면서 해양체육활동의 좋은 점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의 말에 의하면 이동봉사매대들이 수많이 전개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르는 수영복봉사 등을 해주기때문에 너도나도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기로 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용렬차와 뻐스까지 운행되기때문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진정 보이는것마다, 듣는 이야기마다 당의 크나큰 은정에 대한 고마움이 차넘치고 그 은정속에 사람들모두가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가는 행복의 웃음소리 차넘치는 서해명승의 해수욕장이였다.

본사기자 주령봉

민족적향취를 더해준 특색있는 경연무대

전국단고기료리경연장을 돌아보고

얼마전 려명거리에 있는 료리촉전장에서는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이 진행되였다.

이번 경연은 부문별, 지역별예선경연에서 선발된 여러 단체들이 참가하여 지정된 시간안에 단고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단고기료리들을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단고기료리를 잘하기로 소문난 단위들사이의 결승경연인것으로 하여 여기에 참가한 료리사들의 잡도리는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단고기료리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민족료리입니다.》

경연장소인 료리촉전장은 많은 참관자들로 흥성거리였다.

경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우리와 만난 한영훈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민족료리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에 있는 단고기집들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갖춘 전국의 수많은 식당들에서도 삼복철에 단고기료리를 봉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연이 단고기료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경연이 시작되자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료리사들이 저마다 솜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경연에 참가한 평양단고기집의 료리사들의 모습이 류달리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단고기료리를 특색있게 잘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여러차례 기쁨을 드린 평양단고기집의 관록있는 료리사들이여서 그런지 단고기장을 만드는 이들의 료리솜씨는 확실히 남달랐다.

이곳 료리사들의 말에 의하면 단고기장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은 물을 어떻게 끓이는가, 국물을 어떻게 달게 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한다.

단고기장은 소고기국물과 같은 색이 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까풀이 질 정도로 진해야 제대로 된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단고기장에는 다른 기름이나 된장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 연하고 순수하며 구수한것이 단고기료리의 고유한 맛이라는것이다.

창광봉사관리국 단고기집의 료리사들도 맛좋고 구수한 단고기장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곳 단고기집 료리사 한명숙동무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사계절 단고기료리를 봉사한다고 하면서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는것이 바로 단고기료리라고, 삼복철에 단고기장을 먹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료리사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즐겨먹어온 단고기장을 인민들에게 성의껏 봉사해온 나날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향만루대중식당과 경흥식당의 료리사들과 함흥시 동흥산구역종합식당 풍호불고기집의 료리사들의 단고기장만드는 솜씨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민족음식으로서의 고유한 특색을 잘 살린 료리들이 하나하나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여가는 과정을 지켜보느라니 우리는 시간가는줄 몰랐다.

한편 단고기내포백숙을 만드는 료리사들의 모습도 볼만 하였다.

평양단고기집, 모란봉구역종합식당 서흥식당, 모란지도국, 경흥지도국, 함흥시 동흥산구역종합식당의 료리사들은 비린 맛이 없으면서 만문하고 고소한 단고기내포료리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조리를 섬세하게 해나갔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단고기료리의 비방도 알게 되였다. 그에 의하면 단고기료리는 1차가공과 열처리, 맛들이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한다. 내포인 경우 지내오래 삶으면 내포가 질겨지거나 물쩍해지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불조절을 잘해야 내포가 만문하고 고소하며 느끼한 맛도 없게 된다는것이다.

평양단고기집, 창광봉사관리국 단고기집, 경흥지도국의 료리사들이 단고기순대를 만드는 솜씨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뱀은 볶음이나 단고기장에만 리용하는것으로 생각하여오던 관념을 뒤집어엎고 이들은 맛있고 영양가높은 단고기순대를 손색없이 만들어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단고기장에 곁들여 먹는 좁쌀밥의 눈맛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단고기장에 좁쌀밥을 곁들여 먹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습성이다. 흰쌀에 좁쌀을 약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 좁쌀싸락싸락하면서도 노르끄레하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좁쌀밥을 만들기 위해 평양단고기집, 태탄군사회급양관리소 수경국수집, 함흥시 동흥산구역종합식당 양지강냉이국수집, 새벌전골집의 료리사들도 정성을 기울이였다.

어느덧 여러 단체의 료리사들이 단고기장, 단고기내포백숙, 단고기순대료리들을 완성하여 내놓았다. 경연에서 특등으로 평가된것은 평양단고기집에서 만든 단고기료리들이였다. 좁쌀밥, 양념장과 양념, 김치의 눈맛, 입맛도 흠잡을데가 없었다.

경연장에서 우리와 만난 평양단고기집 지배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단고기집은 우리 나라 단고기료리의 원종장이 되여야 하며 평양단고기집 료리사들은 우리 나라 단고기료리의 백과사전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고 하면서 단고기료리를 더욱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하였다.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의 료리사들은 물론 아쉽게도 순위권에 입선하지 못한 단위들의 료리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단고기장을 비롯한 우리의 우수한 민족료리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할 결의로 가슴 불태우는 그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니 생각이 깊어졌다.

해마다 이런 특색있는 경연무대를 통하여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여준 당의 은정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참으로 이번 경연은 음식문화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다채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리수정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대성요업공장에서— 박소연 찍음

독자의 편지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저는 수십년전 군사복무시절에 뜻하지 않게 몸을 다친 특류영예군인입니다. 제가 60나이에 이르기까지 생을 이어올수 있은것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아름다운 인간들의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들가운데는 김만유병원 유전상담 및 줄기세포치료과 의사 오학봉선생도 있습니다.

제가 그를 알게 된것은 5년전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 찾아온 오학봉선생은 제가 18년째 침상에 매인 몸으로 심한 육체적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 사실을 알고 밤깊도록 저의 머리맡을 떠날줄 몰랐습니다. 그밤 한 의료일군이 평범한 영예군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며 어떤 결심을 하고있었는가를 저는 미처 알수 없었습니다.

썩 후날에야 저를 위해 오학봉선생이 아직 현대의학이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한치한치 헤쳐나가며 고심참담한 헌신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게 되였습니다.

진정 그가 지닌 불같은 인간애는 꺼져가던 저의 육체적생명을 지켜주고 마침내 소생의 기쁨까지 안겨준 기적의 원천이였습니다. 그 나날에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 그가 걸은 밤길이 과연 얼마였는지, 기울인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인것인가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이 땅에 인간사랑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가는 이런 훌륭한 보건일군들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선교구역 남신2동 29인민반 김형섭

만민을 매혹시킨 천출위인의 사랑의 세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였으며 력사발전을 주도하신 희세의 위대한 인간, 로숙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장군님의 권위는 이 세상 최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인간사랑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진보적인사들에게도 베풀어졌다.

그들중에는 로씨야의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니나 안드레예바도 있다. 그는 1991년에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을 창건한 녀성정치활동가이다. 가정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당을 조직하고 직업적인 혁명가가 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혁명의 배신자들이 그에게 갖은 박해와 탄압을 가하는 조건에서 당건설과 활동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정치적신념이 견결하고 대담하며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강의한 성격과 도고한 자존심을 지닌 안드레예바는 자기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에 정치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우리 나라 방문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을 여러차례나 만나뵙고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특출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니나 안드레예바가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만나뵈온것은 주체88(1999)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시찰의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일행을 여러 시간이나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를 하나하나 분석해주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명철하고도 사리정연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너나 안드레예바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에게 있어서 온갖 정신적고충을 대번에 씻어주는 명약이나 같았다. 그가 받아안은 행운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 이어 안드레예바를 만찬회에 초청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음식그릇을 당겨 그앞에 놓아주시며 많이 들라고, 남편이 살아있으면 함께 왔겠는데 사망하였다니 정말 섭섭하다고 그의 쓰라린 마음속아픔까지 헤아려주시며 다심하고 뜨거운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를 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안드레예바총비서가 명절때마다 축전을 보내왔는데 자신께서는 혁명동지인 안드레예바총비서의 축전을 깊은 관심속에 보았다고, 우리는 한배를 탄 동지이므로 생사를 같이하고 서로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

파란많은 생애의 우여곡절속에서 온갖 슬픔과 피로움도 꿋꿋이 이겨낸 그였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믿음이 담겨진 이 부름앞에서는 끝내 가슴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병원에서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보약까지 몸소 보내주시였다.

이런 어버이의 따뜻한 손길과 믿음이 있었기에 너나 안드레예바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벗들이 생의 활력과 희열을 되찾고 자주와 진보의 한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전 민주도이췰란드의 초대내각수상이였던 옷토 그로테볼가문도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안았다.

옷토 그로테볼로 말하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난 직후 우리 나라의 전후복구건설사업을 성심성의로 지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였다. 함흥시복구건설사업에 자기 나라의 우수한 건설기술자들을 파견하면서 설계가인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보내주었다. 언제인가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준 그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와의 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시였으며 그의 가족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옷토 그로테볼가문에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은정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대를 두고 계속 이어지였다.

주체83(1994)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옷토 그로테볼의 아들인 한스 그로테볼과 그 가족들을 평양에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휴식을 하게 하라고 하신 교시를 잊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시였던 숙소에서 마음껏 휴식하면서 지낼수 있게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한스 그로테볼의 아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것을 헤아려보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의 건강과 치료정형에 대하여 수시로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치료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귀중한 약재와 건강에 좋은 식료품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옷토 그로테볼가문에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것이였다. 하기에 옷토 그로테볼의 외증손녀는 자기 가문에 대를 두고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친어버이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 집에서 가보로 건사하고있던 미술작품을 선물로 올리기로 하였다. 그들이 선물로 마련한 미술작품은 옷토 그로테볼이 그린 《화구일식》으로서 그가 가장 애용하던 미술도구들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옷토 그로테볼은 정치인으로뿐아니라 미술가로서도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그들가문이 삼가 올린 선물은 국제친선전람관에 정히 보존되여있다.

위인은 사랑으로 더 위대하고 거룩하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와 숭고한 도덕의리,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에 매혹된 사람은 얼마이며 그이의 벗이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또 그 얼마인가.

《김정일동지는 사랑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한 전 유고슬라비야대통령의 진정의 토로, 《사랑으로 인간세계를 가꾸시는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달리는 부를수 없는 인류의 태양이시다.》라고 한 이딸리아의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의 격찬, 《김정일동지는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만민의 은인이시다.》라고 한 빠나마의 무역화물선 《와이트 펠라》호 선장의 고백 등은 그대로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대해같은 인덕과 포용력에 대한 례찬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제적우의와 대해같은 사랑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열렬한 흠모의 송가가 되여 영원히 이 행성에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시는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시며 한평생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바치시였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속에는 주체89(2000)년 8월에 남조선언론사대표단에 평양방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통일시대의 언론이 나아갈 길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언론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을 접견해주시고 무랍없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주시며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당하여온 수난에 찬 분렬의 력사를 회고하시면서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새 천년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앞에 나서는 력사적과제를 풀어나가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북과 남의 언론기관들과 언론인들이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민들의 의사에 맞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시며 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언론이 지니고있는 사명에 대해 환히 밝혀주시였다.

허물많은 자기들을 나무랄대신 너그러운 아량과 넓은 포옹력으로 따뜻이 품어주시고 시종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애국애족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언론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해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은 주체37(1948)년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직후 남조선신문기자단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그대로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간곡한 교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언론인들은 물론 온 겨레가 심장속깊이 새겨안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해박한 식견과 철의 론리

뜻깊은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긴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어려움도 잊고 그이께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올리였다. 그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박한 식견과 철의 론리, 예리한 판단과 해학적인 설명으로 즉석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사대표가 위대한 장군님께 이런 말씀을 올리였다.

《국방위원장님,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좌중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즉석에서 해답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온넋이 끌려 그이의 고견을 받고저 스스럼없이 올린 질문이였는데 그만 그 의미가 다르게 안겨지자 질문자도 당황해졌다. 그러나 남측대표들의 얼굴에 비꼈던 그 당황의 빛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탄의 빛으로 바뀌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그건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문제이라고 신심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순간 남측성원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조국통일위업실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밝혀주신 금옥같은 교시였다.

이날 남측대표들은 통일이 되는 때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는 진리를 똑똑히 새겨안게 되였다.

본사기자

《위협》타령의 리면에 깔려있는 흉심

아베패거리들이 조선의 《위협》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얼마전에 작성한 2018년 방위백서가 그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은 백서에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에도 《조선의 〈자위〉에 대한 기본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쪼아박았는가 하면 우리 나라에 대해 《전례없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또다시 걸고들었다.

황당한 궤변이며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발로이다.

최근 몇달사이에 조선반도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극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우리 나라는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섰다. 이 눈부신 현실을 놓고 국제사회가 격찬하고있다. 아베패당이 아무리 서푼짜리 날조품을 내돌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일본반동들이 우리를 걸고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해마다 발표하는 방위백서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걸고들었고 새로운 무장장비의 구입이나 군사적조치가 필요할 때에도 있지도 않는 《위협》에 대해 렬거하군 하였다. 조선에 대항하기 위해 신형요격미싸일의 대량생산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이미 계획된 정탐위성발사도 조선에 대한 《미싸일탐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공언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에 있어서 《위협》설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런 수법으로 재침을 위한 준비를 다그쳐왔다.

오늘 일본《자위대》는 무시할수 없는 위협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났다. 《자위대》는 현대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다 갖추었다. 정규무력과의 의미상차이는 이미 없어졌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호위함, 소해함, 잠수함, 대형수송함 등 현대적인 함선들을 가지고있다. 항공《자위대》역시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의 수준에 못지 않다. 일본은 병력도 임의의 시각에 수백만 대군으로 확대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고있다. 유사시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릉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병력을 편성할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이런것들은 현행헌법에 명기된 《자위》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야망이다. 일본에서 과거범죄력사를 외곡하면서 재침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서방나라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에 《자위대》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일본반동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 나라들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로골화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것을 눅잦히고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의 《위협》에 대해 목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지난 세기처럼 조선반도를 타고앉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아베패당이 군사대국화책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있지도 않는 《위협》광고로 합리화하려 하지만 어리석은것이다.

일본반동들에게 자국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위협》이 있다면 그 원인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의 실현을 위해 발악하는 그들자신의 무모한 책동에 있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일본당국자들이 내돌리는 《위협》타령을 그렇게 보고있다.

아베패당은 누구도 믿지 않는 《위협》타령을 그만 늘어놓고 재침기도를 버려야 한다.

리현도

도적왕초들의 소굴

검찰은 기업체들이 원유철에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해오자 이자가 자기 보좌관 등과 공모하여 그에 따른 뢰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유철은 이외에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 300만원을 받아먹은 혐의와 어느 한 기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옭아내여 그중 일부를 변호사비용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자의 부정부패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려왔다. 결과 원유철은 지난해 12월 끝내 덜미를 잡히고말았다.

문제는 원유철의 범죄사실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자기는 《몰래 돈을 받거나 요구한적이 없다.》느니, 《억울하다.》느니 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댄것이다. 이자는 지어 눈물까지 줴짜면서 자기의 《결백함》을 밝혀달라고 넋두리질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패거리의 이런 눅거리광대극은 사람들의 조소만 자아냈을뿐이다.

지금껏 《자유한국당》것들은 저들의 부정부패사건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한사코 부인하고 제편에서 남을 걸고들며 민심을 얼려넘기려고 요술을 피웠다. 하지만 종당에는 론박할수 없는 객관적사실자료들에 의해 범죄혐의들이 명백히 립증되고 결과 족쇄를 차고 감옥밥을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친박계인물로 알려진 최경환의 경우도 바로 그렇다.

이자는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정보원것들이 뢰물로 섬겨바친 10만US$를 받아 제배를 채웠다.

그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경환은 《억울하다.》느니, 정보원돈을 받은것이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느니 하고 실로 파렴치하게 놀아댔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최경환의 범죄내막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로 하여 이자는 끝내 오라를 지고 감옥행을 하게 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원유철이 죄가 없는듯이 뻗대고있지만 재판결과는 결코 달리되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사실들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통채로 력사의 무덤속에 처넣어야 할 도적왕초들의 소굴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에 항의

오사까의 《조선고급학교지원제도를 요구하는 련락회》의 주최로 7월 18일 오사까시역소앞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오사까시당국을 규탄하는 긴급항의행동이 진행되였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부모들과 동포들 그리고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2016년부터 오사까시당국은 5살 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지난해부터는 4살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전 조선유치반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오사까시당국은 지원제도적용대상을 검토하면서 《각종 학교의 유치원에 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되였다.》고 공언하면서 시내에 있는 7개의 조선유치반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긴급항의행동에서 발언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조선유치반만을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완전한 민족차별》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들은 한쪽으로는 《인권》을 떠드는 시당국이 다른 한쪽에서 이렇게 민족차별을 하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단죄하였다.

적용대상에 포함된 아이들과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이 무엇이 다른가고 그들은 절규하였다. 차별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결심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시당국의 차별정책에 맞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알리는 인쇄물을 뿌리며 조선유치반에도 평등하게 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기무사령부의 해체가 최소한의 방도

남조선신문이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7월 26일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7월 24일 《국회》에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론난은 불필요한것이라고 하면서 기본은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임무를 가진 기무사령부가 오히려 군사반란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계엄》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무사령부를 보존하려고 힘을 쏟고있을뿐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무사령부의 해체가 최소한의 방도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남조선단체들 쿠데타음모주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참여련대, 《4월 16일의 약속 국민련대》가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초불투쟁참가자들에 대한 무력진압음모를 꾸민 주모자들을 즉시 수사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20일 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의 《세부자료》가 공개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박근혜역도의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사용할 《비상계엄선포문》, 《계엄포고문》이 작성되여있었고 《계엄》군사령부의 위치도 정해져있었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이것은 《계엄령》선포가 실질적인 단계에 이르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어둠을 리용하여 중요시설, 주요집회장소로 예상되는 지역들에 땅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군사작전계획도 세웠다고 단죄하였다.

《국회》의 《계엄령》해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무사령부가 《자유한국당》과 협의하고 야당《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계획까지 세운것이야말로 의심할바 없는 쿠데타음모로서 박근혜《정부》를 지키기 위한것이라고 단체들은 까밝혔다.

시민사회는 아직도 군사독재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시민들의 초불시위를 군화발로 짓밟으려고 하였던 쿠데타음모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단체들은 민군합동수사단을 민간검찰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박근혜로부터 당시 군상층부, 청와대 참모부, 여당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신속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전 경호실장 박흥렬,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등 쿠데타음모주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국을 비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동지가 7월 26일 몬까다병영습격 65돐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꾸바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자국외교관들에 대한 《음파공격》설을 내돌리며 꾸바를 비난하고 긴장을 격화시키고있지만 누구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까밝혔다.

그는 꾸바에 대한 미국주도의 무역금수조치가 강화되였으며 특히 꾸바와 금융거래를 하는 나라나 회사들이 제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지역기구들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을 규탄하고 이에 대처하는 길은 혁명가들의 단결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강화되는 단결과 협조

얼마전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제24차 싼 빠울로연단이 열리였다.

이번 연단에는 세계 51개 나라에서 온 625명의 공산당, 로동당을 비롯한 수많은 정당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미전부터 싼 빠울로연단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의 진보적인 정당들과 단체들의 중요한 모임으로 인정받고있다.

이번 싼 빠울로연단에 앞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는 아바나대회당에서 진행된 꾸바기자동맹 제10차대회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꾸바가 어려움을 겪고있던 시기 자국의 기자들이 높은 애국심과 재능, 총명과 열정을 발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며 혁명에 충실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통신보도수단을 국가의 전략수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기자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과제는 영웅적꾸바인민의 위훈을 세상에 널리 소개선전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묘사한 영웅적꾸바인민의 위훈은 단결의 힘으로 새겨가는 위훈이다. 오늘날 꾸바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고있다.

아바나의 혁명광장에서 진행된 5.1절기념집회와 시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단결, 헌신, 승리》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당과 정부에 대한 믿음과 지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할 결의를 피력하며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꾸바에서 단결의 기운이 얼마나 높아가고있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분위기속에서 싼 빠울로연단이 개최된것으로 하여 그 의의는 크게 부각되였다.

연단이 진행되는 기간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와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는 베네수엘라대통령, 볼리비아대통령, 모잠비끄전 대통령, 쎄인트 루씨아의 전 수상 등 여러 나라 정부지도자들과 고위인물들을 만나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지와 련대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연단기간 미국의 반꾸바경제봉쇄를 종식시키고 관타나모해군기지를 꾸바에 반환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들과 베네수엘라와 니까라과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특히 꾸바의 위업에 대한 련대성이 높아졌다.

국제법에 배치되게 수십년간 반꾸바봉쇄정책이 실시되였으나 이것은 꾸바를 고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꾸바인민의 원칙성만 강해지게 하였다는것 등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단결과 협조의 기운은 연단의 폐막식을 계기로 고조되였다.

적지 않은 정부지도자들과 고위인물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은 오늘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단결이라고 언명하면서 앞으로 자그마한 양보도 없이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볼리비아대통령, 엘 쌀바도르대통령들은 평화를 지향하여 단결의 힘으로 계속 투쟁하며 그를 위해 경험교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제자주,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에 기초한 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과시한 제24차 싼 빠울로연단은 오늘날 단결과 협조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으며 지배주의세력이 발붙일 곳이 점점 없어지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

중국외교부 미국의 비난을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경상이 7월 26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농민들을 판세보복의 목표로 삼고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그는 현재의 국면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고 변덕을 부리며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일으킨 결과라고 하면서 미국의 농민들은 미국정부의 무역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국내 각계의 리성적인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대형무인직승기시험비행에 성공

중국이 최근 새로 연구제작한 《상옹-200》대형무인직승기의 시험비행에서 성공하였다.

이 무인직승기는 조종, 동력계통을 비롯한 주요부분품들의 국산화가 실현되였으며 농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광범히 리용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적들의 군사적침략기도에 경고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이 7월 27일 자기 나라에 대한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침략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적들의 군사적위협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들의 위협과 제재가 극한점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지난 시기 이란에서 사회적불안을 조성하려던 온갖 모략은 실패를 면치 못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일본에서 태풍피해

일본의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7월 28일 태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폭우를 동반한 시속 약 90㎞의 태풍으로 살림집지붕들이 날아나고 창문들의 유리가 깨여져 29일현재 24명의 부상자가 났다.

또한 수백편의 비행기운행과 렬차운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나라현에서는 시간당 120㎜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한다.

태풍과 폭우로 큰물과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확대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19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